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 인 친 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4 January Vol.215

리:스펙 제대군인



푸르미르

: 청룡을 일컫는 순우리말

신년사
청룡의 해, 건강 행복 기원

굿 JOB 굿 LIFE
육군 예비역 중사가
인공지능이요?

중고골프용품 전문매장 관리
예비역 공군 중사 유현성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ol.215
2024 January





푸르미르

: 청룡을 일컫는 순우리말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르미르'라는 순우리말을 되새겨 봅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발음을 가진 이 단어는 푸른빛의 용, 즉 '청룡'을 뜻합니다. 사방신 중 하나인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쪽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며 계절 중에선 봄, 오행 중에서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에 더해 '미르'라는 단어는 물의 옛말과도 관련이 있죠. 이렇듯, 사방신 중에서도 청룡은 특히 자연을 다스리고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거칠고 강한 이미지를 가진 청룡이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인 봄을 상징한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도 2024년은 청룡처럼 기개 넘치는 태도를 갖추는 한편 주변의 생명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지키는 한 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새해의 밝은 마음을 나누어 봅니다.

Contents

푸르미르

: 청룡을 일컫는 순우리말

통권 215호

발행일 2024년 1월 3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twitter.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8

Again my Life 라

새 삶의 시작을 응원

02 **테마읽기**
푸르미르: 청룡을 일컫는 순우리말

06 **신년사**
청룡의 해, 건강 행복 기원

08 **리:스펙 히어로**
젊은 패기로 창업에 도전한다
유현성 예비역 공군 중사

12 **선배의 노하우 Zip**
구급차 운전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
장성일 예비역 육군 소령

16 **굿 JOB 굿 LIFE**
육군 예비역 중사가 인공지능이요?
김일구 예비역 육군 중사

Change Work 일

제2의 업을 찾는 방법

18 **지속 가능한 미래로**
업계 1위를 넘어 어제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변화해가는 유베이스

22 **성공 길라잡이**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24 **Zoom IN**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상생의 다리, 남도마켓

26 **방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미생>으로 알아보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28 **꿀팁전당포**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나는 '자라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 추천!

30 **백 투더 잡**
조선에서부터 2024년까지 옷 짓는 이들의 개성 있는 변천사
침선비 & 패션디자이너



12



18

Better Live 락

즐거움이 있는 삶

32 **여행 보일지도**
청룡의 해를 여는 기개 넘치는 풍경, 충북 제천

36 **무엇이든 물어보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좋아하는 방법
글 박유진(스튜디오 휴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38 **전국군대자랑**
보이지 않는 시너지 단결!
박성진 예비역 육군 소령

40 **오늘도 ESG**
올해부터 나부터, 지구를 지키는 설 명절

42 **다 함께 PLAY**
올해부터는 책을 읽겠다 다짐했다면?
새해를 여는 추천 도서

존경하는 제대군인 여러분, 그리고 리;스펙 제대군인 애독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만복(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청춘을 바치며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호국영웅입니다. 6·25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G-20을 넘어 G-8을 바라보는 국제 위상과 K-컬처를 좇아 세계인이 한국을 찾게 하는 국격을 갖추기까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여러분이 계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제대군인 정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은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기관의 위상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훈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소방·경찰관 등 제복군무자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보훈정책부서로 거듭났습니다. 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라는 슬로건 하에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 제복군무자 예우 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제대군인 여러분!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현실은 더욱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현역군인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차대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정책을 한 단계 격상하고자 합니다. 전직지원금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한 기업참여 제고 등 제대군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다리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제대군인에게 가장 절실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율적 전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고, 의무·단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강하여 연령별,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계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주간, 대국민 감사 캠페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복군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가안보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제대군인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2.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젊은 패기로 창업에

도전한다

예비역 공군 중사 유현성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다. 올해는
갑진년으로 육십갑자 중에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는 '푸른
용의 해'다. 새해에는 모두가 희망에
부풀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새기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불안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중고골프용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이 또한 젊음의 소중한 경험으로 삼고자 하는
예비역 공군 중사 유현성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영상 황지수



Interview



○○● 청년! 꿈을 품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평택에 있는 중고골프용품 전문매장을 찾았다. 실내로 들어서자 환한 조명 아래 매장 가운데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엄청난 수의 골프채가 보인다. 매장 한쪽에서는 고객들이 골프채 테스트를 하느라 시원스레 스윙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골프공 특유의 상쾌한 타격음이 터지고 있었다. 우리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젊은 청년 유현성 씨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어보았다.

“이곳은 골프용품 매장으로 신형클럽과 중고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가게이고 저는 이곳에서 고객들에게 골프용품 판매 및 골프클럽 피팅과 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하기 전부터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일을 도왔고 지금은 직접 일본을 오가며 중고골프클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매장을 내기 전에 돈도 벌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그에 연관된 일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전역하기 전부터 이곳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골프를 좋아했거나 골프와 관련 있는 일을 했었는지 물었다.

“아뇨.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골프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골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골프전문매장을 오픈하셔서 일을 도와주다가 이 일이 가지는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아버님이 해병대에서 장교로 근무하셨는데 아버님은 군인으로서 조국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크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군에 입대하여 기체 수리나 전투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보통신학과를 나와서인지 지상레이더 체계 정비라는 특기를 받아서 레이더 정비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야로 보직변경을 원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역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창업 쪽으로 준비를 하던 도중 지인이 골프매장을 운영하게 되어서 일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시작! 날개를 달다

직업군인을 꿈꾸었지만 인생항로는 항상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유현성 씨와 대화를 하다보니 본인은 새로운 일이 다가올 때 불필요한 걱정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기보다 우선 힘 닿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잘 풀리지 않을 때 질문을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편이라고 한다. 그에게 지금은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시간인가 보다. “우연한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을 하다보니 이 일이 가지는 매력이 있더라구요. 제가 원래 조금 내향적인 성격인데 매장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다보니 성격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물건을 팔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교감이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원하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골프시장도 많이 성장하여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원래 일본의 골프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에는 견학 할 겸 일본에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물건을 매입해 와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채 고유의 스윙 웨이트를 조절해 주거나 골프클럽을 고객이 원하는 길이로 컷팅하는 일, 그리고 그립을 바꿔주는 일 등을 하는 피팅과 수리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 실패!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퍼즐

지금은 일을 배우고 있지만 조만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굳이 창업을 하려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직업군인 이외의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는 제가 원하는 소득을 얻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아직은 젊을 때 한번 도전해 보자는



비록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지만 아직은 젊을 때 한번 도전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Interview

생각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골프시장 업계현황 파악 및 트렌드 분석, 피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의 골프습을 여는 것이 목표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골프용품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즐기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비상! 청룡처럼 날아오르기를

인터뷰를 마치며 새해를 맞이하여 바라는 소망을 물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소비는 얼어붙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늘 그랬듯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로 솟아나는 푸르른 용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의 포부가 현실이 되어 그만의 브랜드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골프용품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즐기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구급차 운전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다

예비역 육군 소령 장성일

군생활 동안 짊어졌던 리더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해진 시간,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며 일과 이후 자신의 삶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령 장성일 멘토를 속초시보건소에서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Life



Work

멘타: 멘토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멘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ROTC 41기로 2003년에 의정장교로 임관해서 12년 5개월간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육군 소령 장성일입니다. 전역 후 2018년 1월에 속초시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6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멘타: 속초시 운전직 공무원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멘토: 저는 속초시 운전직 공무원으로 시에서 운용하는 관용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장교의 경험이 있어서 보건소로 인사발령이 있었는지 현재는 보건소 보건위생 정책과 감염병관리팀에 소속되어 일반 구급차, 음압 구급차(감염병 환자용) 및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공용차량관리팀에서 지원 요청 시 대형버스와 5톤 제설차량, 그레이더(제설용 차량) 등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Balance

“
군생활을 하신
후배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멘타: 취업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멘토: 군 생활을 하면서 작전 및 훈련보다는 부대 및 병력관리 등의 행정업무와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스트레스가 적고, 군경력(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제게 운전 직 공무원을 추천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고 전역 전 10개월 전직지원 기간에 강원동부보훈지청(강릉)에 취업지원을 신청하였는데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 사람은 전역 후 3년간 보훈특별고용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교육비를 받아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했으며, 또한 폴리텍야간대학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는 등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지원을 하였는데 좋은 기회로 속초시청 운전직에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멘타: 운전직 공무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멘토: 운전직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 추천의 경력직 채용과 일반직 공무원 채용이 있는데요. 일반직 전형은 필기시험(2~3과목)과 면접으로, 경력직 채용은 각 지역별 다를 수 있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직접 확인을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자격은 대형면허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이 2023년 전년부터 다시 부활이 되었지만 전에는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용차량에는 대형버스부터 일반 승용차까지 다양한 차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을 다 운전 가능하도록 차량별 운전능력을 키워야 하며, 평소 운전을 하기에 직원들이 요청하게 되면 모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멘타: 실제 일을 해보고 느낀 이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멘토: 가장 큰 장점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운전 업무로 타부서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데 하루 중 운전업무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날도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매일의 업무는 그날 퇴근과 함께 마무리되기에 저녁 시간 등 개인적인 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로 인해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저는 일과 후에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를 즐기기도 하고 제과제빵 자격증 등 제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급여가 작을 수 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하면서 호봉을 인정받지만 군생활보다 급여가 작아서 초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급까지 승진하고 나면 급여 수준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 중 시장 / 부시장님 수행원 업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휘부의 일정에 따라 다니기에 개인적인 시간이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멘타: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어떻게 되나요?

멘토: 저의 원래 꿈은 체육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일을 해나가면 향후 6급 승진과 팀장으로서의 보직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운전직 공무원을 하면서 체육과 관련된 석박사과정을 준비해서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는 강사 겸직으로 강의를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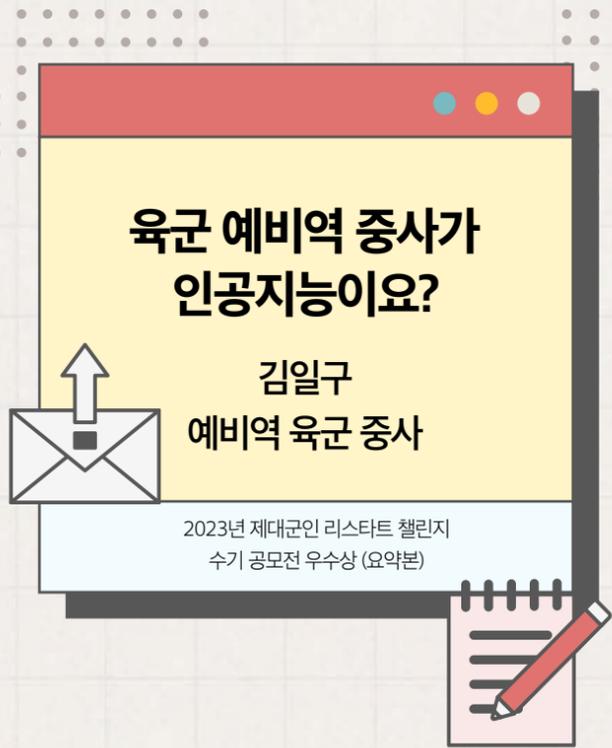
멘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멘토: 군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운전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이 중단되고, 9급 20호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급여는 본봉이 300만원 정도여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로 군생활을 하신 후배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운전직 공무원에도 부서관 출신이 저 포함 4명 있는데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고, 8급 승진도 8개월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의 제대군인들에게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군에 있을 때 운전병처럼 생각해서 많이 하대받는 직종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휘관까지 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나”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전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이전처럼 ‘기사’라는 호칭이 아닌 ‘주무관’으로 불리는 등 다른 직렬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직업에 대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하면서 군생활의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없이 일이 끝난 후 개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원하신다면 운전직 공무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



운전직 공무원

관공서에 있는 각종 자동차의 운전과 유지보수, 배차 등 국가행정의 기동력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버스, 의전 차량, 단속 차량, 살수차, 청소차, 구급차, 방역차, 로더와 지게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고 관리한다. 행정복지센터에도 1명씩 배치되어 차량(현대 포터, 기아 봉고의 더블캡 모델)을 이용해 문서 수발, 물품 수령 등 관련 업무를 하거나 도로관리, 청소행정, 공공근로 감독, 불법현수막 단속,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 불법 쓰레기 수거 및 단속 청사 내 무거운 물품 이동, 민원업무와 같은 운전 외 업무도 많이 한다(서울시 기준). 즉 관내를 돌아다니며 실질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운전직 공무원이다.



육군 중사 + 인공지능 = ?

“오빠, 일단 사과부터 할게. 오늘 모임에 나갔다 왔는데, 요새 남편 뭐하냐고 물어봐서 오빠가 직업군인 그만두고 AI 한다고 말했거든. 거기서 사람들이 AI로 무슨 일 하느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 설명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빠 백수인데 내가 둘러댄 건 줄 알아. 미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저는 백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81mm 박격포병 1년 2개월, 방공부사관(발칸) 9년, 특임보병 2년, 도합 12년 2개월……. 컴퓨터의 ‘컴’ 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직업군인이 어떻게 AI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요. 여러 회사에 지원할 때마다 빠짐 없이 답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AI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풀고자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전역

4년 전만 해도 저는 전역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도 “우리, 군인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 지역에 남아서 오래오래 쪽 살자.”라고 설득했으니까요. 이렇게 감언이설로 꼬여내어 어떻게든 아내

와 혼인을 하긴 했으나 점점 저를 조여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후방 교류였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제 눈에 특임보병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특임보병으로 지원하면 2작사 예하부대에 남을 수 있다고 하니 “결혼해도 이 지역에 살 수 있다고 하더니, 이것은 사기 결혼이다.”라며 펄펄 뛰던 아내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가장 무서운 아내를 뒤로 한 채 과감히 특임보병에 지원하게 되었고, 발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빠질 만큼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사건이 불쑥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로 휴가 나가기 힘들어지면서 저는 주말부부에서 석 달에 한두 번 만나는 분기별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2작사 예하부대에 남을 수 있다고 보장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말렸습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저는 상사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당시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군인이라는 안정성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군대에서 나오겠다는 제 말에 아내와 장모님이 제 의견을 존중해 주긴 했으나,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쿠○맨 하면 돼요.” 라는 제 말에 항상 저를 백년손님처럼 대하던 장모님은 처음으로 제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태산 같다는 표현이었겠지요. 저는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제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과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 직보반 기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생활고를 안길 수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는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행렬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한 통계까지, IT와 관련 있는 개념이라면 중학

교 교과서까지 살펴보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적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는 마음으로 인생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직보반 기간에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마땅한 정보도 없었으며 주위에 이 길을 먼저 가본 선배도 없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도와준 건 제대군인지원센터였습니다.

저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직업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 선생님께서 항상 자기 일처럼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알아보고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곧바로 전화로 알려 주셨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서는 취업 상담을 하던 중에 제가 IT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고용노동청에 요청하여 국비 지원으로 인공지능 과정 부트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관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캠프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역 부트캠프 1기 학생이 되어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놓칠 뻔한 귀한 기회였습니다.

군에서 배웠던 리더십으로

저는 인공지능 캠프에 참여하면서 제 실력을 가능하고자 공모전에 도전하였습니다. 팀을 꾸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대회로 유명한 캐글에 도전하였지만 역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에서 배웠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팀원을 모집하여 통계청에서 주최한 인공지능 활용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전국 대상을 받게 되었고, 난생처음 1등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계청 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 아내는 정말 뭉툭이 기뻐했고,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영영 우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당장 표현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힌 채 한동안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공지능 교육기관에서 훈련한 학생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교육기관 본사에서 인터뷰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캠프 막바지에 지금의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공공기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있게 한 것들

‘그리하여 저는 스카우트되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결말이 나면 삶이 재미가 없겠지요. 저는 서울로 상경하기가 무섭게 대전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도 계속하여 다른 프로젝트를 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모델을 만들고 문서를 작성하며 사용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다년간 군대에서 수행했던 브리핑, 공문 처리,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임보병으로 전환하여 단시간 내에 적응하는 노하우를 익히고 다들 기피하는 공수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군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이 제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직보 기간부터 공부, 취업, 취업 후 첫 프로젝트까지 변화를 위해서 짧은 기간에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 시점에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항상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덕이 컸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취업했다고 말하니 기쁘게 응답해 주시던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덕분에 홀로 남겨진 것 같던 시간 속에서도 도움과 격려를 받으며 한발 한발 전진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제대군인분들께 병력 관리, 병과 특기 공부, 행정 업무, 훈련, 체력 등 군대에서 쏟던 모든 역량을 자신에게 쏟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4차 산업혁명 현장에서 제대군인분들을 많이 만나 서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먼저 길을 닦아 놓고 있겠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 파이팅!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업계 1위를 넘어 어깨보다 더 높은 회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변화해가는

유베이스



유베이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택센터 사업을 바탕으로, 자회사인 넥서스커뮤니티와 한일네트웍스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유베이스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는 종합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유베이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 **이민규 부사장** _____ 저희 회사는 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유베이스 그룹 기준 2만 5,000석 이상의 BPO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CX 솔루션 개발, IT장비 관리 및 유통, ITSM사업 등 다양한 운영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며 국내외 1,000개의 고객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BPO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유베이스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이민규 부사장** _____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좋은사람, 좋은회사'라는 슬로건에 맞게 근무하는 직원들 개개인의 복지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회사가 가지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채현석 상무** _____ 유베이스는 발달장애를 가진 미술작가를 채용하여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원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을 채용하여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고 이곳을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5개 스포츠분야의 운동 선수를 채용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 BASE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채현석 상무** _____ 회사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짧은 기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대군인은 군생활을 통해 책임감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배양해왔고 리더십 측면에서도 특징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fast track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전역장교 특별채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민규 부사장** _____ 저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사람을 관리하고 모티베이션해서 그 안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줄 리더를 원했는데 제대군인분들은 그런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받아오신 분들이라 직원들을 이끌어가고, 모범이 되는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제대군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이택민 SV** _____ 전역장교 특별채용과 더불어 회사 자체의 교육을 진행하여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지원했습니다.

○ **나우근 SV** _____ 지원 당시 저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유베이스의 채용공고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리더 양성 패스트트랙 특별채용 과정에 제가 가진 군 경험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경험이 회사 생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 **문정훈 SV** _____ 군 장교생활을 하며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을 다루는 방법을 습득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회사에서 SV(수퍼바이저)로서 팀원들을 독려하고 다독이며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나우근 SV** _____ 우선 관리직 업무이기 때문에 장교로서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 또는 선임자의 말에 빠르고 명확한 반응을 하고 힘든 일에도 솔선수범 하는 등 군에서 익힌 생활 습관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근무하며 느끼는 회사에 대한 소감

○ **이택민 SV** _____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각각의 고객센터가 개별부서로 취급되다 보니 각 부서가 작은 회사처럼 느껴집니다. 기업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개발 및 연구에 집중하고 고객 경험 및 대응을 BPO산업에 맡기는 시대 흐름상 그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고객센터에 대한 니즈가 있고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우근 SV** _____ 전역장교 신분으로 입사 후 온보딩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명함 지갑 제작, 멘토 지정 그리고 실무 배치 후에도 여러 번 임원진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관심들이 현재 맡은 업무에 지치더라도 다시 힘낼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업무적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유베이스가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이택민 SV** _____ 전공과 무관하다 싶은 정도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문턱이 낮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내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학습하면 대응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타 상담사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 상담사들을 보면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나우근 SV** _____ 일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 꼽자면 접근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각 센터의 위치가 지하철 역과 가까워 어느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 **이택민 SV** _____ 본인의 전공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경찰, 소방공무원 등 여러 가지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과거보다 제대군인의 채용의 폭이 좁아졌다고는 하나 최근 대기업의 전역군인 특별채용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 기간 동안 충분히 과거 2년간의 채용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해 본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문정훈 SV** _____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며 필수로 습득한 책임감과 부하관리, 그리고 소통에 관한 경험은 우리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나우근 SV** _____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설레면서도 걱정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군 복무를 하며 쌓은 경험과 배움이 분명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 자산을 어필하여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출발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U BASE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훈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최대 6개월)	제대군인 대부금리 (0.6%p 인상)
'24년	840개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중기 55만 원 장기 77만 원	3.5 ~ 4.5%
'23년	740개	신규	중기 50만 원 장기 70만 원	2.9 ~ 3.9%

청년 군인



	봉급 (병장기준)	사회진출 지원금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24년	125만 원	40만 원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23년	100만 원	30만 원	장교 9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	대학재학 학사학군단 (7,058명)

청년 생활지원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공동주택 (분양/임대)	분양 임대
'24년	청년 30% 할인 (일반 20%, 저소득층 53%)	응시료 50% 할인 (최대 3회/연)	전액 지원	6.7만 호 5.7만 호	
'23년	알뜰교통카드 (~'24. 6.)	신규	700만 원 ~ 전액 지원	5.3만 호 5.2만 호	

청년 자립기반



	자립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조선·물류 등)	첨단산업 훈련지원	NEET 청년 플랫폼
'24년	월 50만 원 (5년간)	최대 200만 원 (6개월간)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10개소
'23년	월 40만 원 (5년간)	신규	반도체 920명	신규

어르신



	노인 일자리 수	공익형 일자리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24년	103만 명 (노인인구의 10.3% 수준)	월 63.4만 원 (60시간)	월 29만 원 (30시간)	기준연금 33.4만 원 지급인원 700.6만 명
'23년	88.3만 명 (노인인구의 9.3% 수준)	월 59.4만 원	월 27만 원	기준연금 32.3만 원 지급인원 665만 명

일·육아 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맞돌봄 특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24년	최대 18개월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최대 450만 원 / 6개월	10일
'23년	최대 12개월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최대 300만 원 / 3개월	5일

양육비 경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 소득요건	어린이 휴일·야간 진료
'24년	300만 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폐지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23년	200만 원	0세 75만 원 1세 35만 원	중위 180%	신규

저소득층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4년	46.1만 원	65.4만 원	72.7만 원	폐지
'23년	41.5만 원	58.9만 원	65.4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 상생의 다리

인터넷 창이나 휴대폰 앱을 켜서 며칠 뒤에 입을 바지를 주문하고
일주일 치 식재료를 손짓 몇 번으로 배송시킨다.
온라인 시장이 나날이 커져 가는 오늘날의 모습은 이렇하다.
그 속에서 몸살을 앓으며 과거의 빛을 잃어 가던 남대문시장을
다시 일으켜준 기업이 있다. 바로 남도마켓이다.



글 이재경 사진 남도마켓 제공

코로나19를 딛고 다시 연 남대문시장 전국 고객들과 온라인으로 연결

우리나라의 대표 도매시장 중 하나인 남대문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상품을 취급한다. 남도마켓을 통해서라면 남대문시장의 신상품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확인, 구매하고 배송 받을 수 있다. 언뜻 간단하게 들리지만 남도마켓이기에 가능한 서비스다. '남도마켓'이란 이공생관계를 나타내듯, '남대문도매마켓'을 줄인 직관적인 이름이다. 남대문시장은 600여 년 전통으로 오랜 관습이 굳어져 디지털 거래 환경으로의 변화가 어려웠고 2020년 코로나19의 마수가 오프라인의 곳곳에 뻗치며 결국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때 남도마켓이 소상공인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며 등장했다. 꾸준함과 신뢰를 사업 철학으로 삼은 남도마켓은 수수료를 내세우던 타 플랫폼들과 다르게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시장과의 상생에 성공했다.

**남대문에 가지 않아도
남대문 도매상품을
남대문 도매가격으로!**

가장 쉬운 남대문 거래는 남도마켓



무료 서비스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남도마켓의 비결

현재 전국 6만여 명의 도소매 사업자가 남도마켓에 가입되어 있다. 온라인 도매거래 점유율로도 1위이다. 이처럼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도마켓은 무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생이라는 기업의 취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는 수익모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남도마켓에도 유료 서비스는 존재한다. 도소매를 잇는 사업 판매 협업툴인 ND서비스들이 바로 그것이다. 상품 사진을 회사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으로 찍어 주고, 주문 접수와 배송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남도마켓의 강점은 많다. 남대문시장의 특성을 이어받아 다양한 물품 카테고리를 확보하고 있고, 현장 가격과 같은 도매가를 보장하면서 고객들을 연결했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상품 등록과 결제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상품 등록, 결제, 상품 검수, 포장, 배송이라는 전 과정을 돕는 서비스를 갖춘 것 또한 남도마켓의 강점이다.



namdo market

사람 나고 돈 났다, 사람과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

남도마켓이 특별한 이유는 변함없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 있다. 양승우 대표가 걸어온 길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이전에도 여러 사업에서 실패를 맛보았고, 남도마켓을 시작할 때는 하루 60여 곳의 가게를 직접 방문해 입점을 설득하며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다. 꾸준함과 신뢰라는 철학은 잊지 않았다. 그 결과 도매상인들의 신뢰를 얻어 함께 성장하며 새 사업자 유입 없이 위축되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남도마켓은 2022년 '남대문 상권활성화협의회' 대표기업으로 선정되어 여전히 남대문시장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내부적으로는 2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정부기관과 협력해 청년 및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사람 간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남도마켓의 가치관은 지금도 무료 서비스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남대문시장에서 출발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

2023년도는 결실을 맺는 해였다. 높은 성장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하이서울기업'으로 선정되고, 20억 원 규모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소상공인 활로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유료 서비스와의 유기성 강화, AI 활용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남도마켓은 멈추지 않고 더 큰 시장을 추구한다. 2021년 <오징어게임>의 유니폼을 구매하려 찾아온 해외 고객을 보며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깨달아, 2023 홍콩 주얼리 박람회에서 500여 점의 남대문 액세서리를 남도마켓 플랫폼을 통해 알리고 다국적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베트남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KOZEE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으며, 현지 오프라인 업체와 손잡고 해외 소재 온라인몰과 활발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것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남도마켓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한국의 '아마존', '알리바바'를 꿈꾸고 있다. 🌐

사진 제공 tvN

드라마 <미생>으로 알아보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퇴근 후 나의 삶이 있는 워라벨이 중요해진 시대, 아이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워라벨이 더욱 절실하다. 회사의 현실 속 리얼리티를 살려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 속 인물의 사연을 통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업무와 육아,
모두 잘해 낼 순 없을까?

WORK-LIFE
BALANCE



업무와 육아, 모두 잘해내고 싶은 선차장에게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무역 회사의 영업 1팀에 근무하는 선차장은 사내 평판도 좋고 빈틈없는 업무처리와 깔끔한 마무리로 신뢰를 얻고 있다. 회사 내 능력 있는 워킹맘으로 불리며 여직원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롤모델로 꼽힌다. 하지만 퇴근하면 설거지, 청소, 빨래 등 밀린 집안일은 물론, 아침에는 전쟁처럼 딸 소미를 유치원에 서둘러 보낸다.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선차장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 업무와 육아, 모두 잘해내고 싶은 선차장에게 해결방법은 없을까?



Q.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란?



드라마 <미생>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면 주 소정 근무시간을 30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1인당 월 3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준다.

Q. 지원대상 Check List

- 직장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다.
- 주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 이상이다.
- 주 소정 근무시간 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했다.
- 1달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Q.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①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접속
- ② <기업서비스> 탭
- ③ <워라벨일자리> 클릭

Tip Box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육아제도 Zoom In

1) 육아 공백 해소 지원 제도

맞벌이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난해부터 통합 플랫폼으로 개선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아이 돌봄 통합 연결 공간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연장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경력단절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3) 육아휴직제도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만으로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지난해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 휴직 기간이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기존 급여 대상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2024년 제도보완 시행 예정

·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

나는 '자라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 추천!



I'M GROWING UP!

01

드로우 앤드류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퍼스널브랜딩 전문가 드로우앤드류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프로유튜버이다. 동명의 유튜브 채널에

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쉽게 성취감을 얻는 방법, 잘 되는 콘텐츠의 비결 등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해주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적인 자기계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드로우앤드류는 자신의 시행착오를 담은 <러키 드로우>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며 구독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는, 살아 있는 자기계발서이다.

02

공여사들



신입사원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 바로 '일머리'에 관한 것이다. 한껏 긴장한 탓에 원래 할 줄 알던 것도 버벅대기 일쑤이고, 외웠던 엑셀

수식은 하얗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울적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 유튜브를 켜 '공대 나온 여자 사람'의 줄임말, '공여사들'을 시청해보자. 그들은 직장인 엑셀, 업무 태도 팁 등 직장인들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유튜버이다.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엑셀 수식과 꿀팁을 담은 첫 영상의 조회 수가 무려 2백만이 넘으며 단번에 초보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직장인 맞춤형 채널이다. 자칭 타칭 '일잘러'들의 비법을 전수받아 보자.

직장인에게 취미가 무어나고 물어본다면, '유튜브 시청'이라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 방구석 1열에 앉아 세계 여행을 떠날 수도, 스타 강사의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현대인에게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유튜브. 챗바퀴 같은 직장인의 일상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심어줄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한다.

03

14F



밤 9시만 되면 TV를 틀고 꼬박 한 시간 동안 뉴스를 보던 시절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스포츠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뉴스도 짧고 간

략해지는 것이 트렌드! MBC 14층 미디어센터 사람들이 만드는 짧고 똑똑한 뉴스 채널인 '14F'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이다. 정치 뉴스보다는 MZ세대인 2030 연령층이 관심을 보이는 사회, 경제 소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해준다. 덕분에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장 조회 수가 높은 콘텐츠는 단연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주식에 관한 영상이다.

04

취업사이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가장 긴장되는 것은 바로, 면접이다. 목소리보다 심장 소리가 먼저 들릴 것 같은 1분 자기소개와 인성 면접, 혹은

면접을 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 등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면접 꿀팁들을 알려준다. 실제 대기업의 면접관들과 취준생이 출연해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마치 예능 프로처럼 재미있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 면접자와 그 대답을 분석할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면접도 되돌아볼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서류 작성 방법도 알려주니 꼭 참고해 보자.

AN OFFICE WORKER GROWTH PROJECT



조선에서부터 2024년까지
옷 짓는 이들의 개성 있는 변천사

BACK TO

**침선비 &
패션디자이너**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옷. 60만 년 전 원시시대 사람들도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전해진다.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신분의 구분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옷 짓는 이들의 이모저모를 담아봤다.



사진 출처 (위)소박스



사진 출처 (아래)김민서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완성되는



침선비(針線婢)

조선 후기 풍속화가 조영석의 작품 <바느질>에는 세 여인이 모여 앉아 바느질에 여념이 없다. 그림에서도 비취지듯, 조선시대 여인들은 다른 사람의 바느질을 해주고 품값을 받는 샛바느질로 집안의 생계를 이끌었다. 관청에서는 침선비를 두고 바늘과 실을 전담하도록 했다. 침선비는 왕실의 의복을 전담하는 상의원 소속 노비인데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화려한 옷은 이들이 만든 것이다. 상의원은 조선 태조 때 세워진 관청으로, 왕실에서 필요한 옷과 장신구 등의 수공예품을 만들어 진상하고 보관하던 곳이다. 경우에 따라 관원과 사신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도 공급하고 중국에서 보내온 관복을 보수하거나 직접 제조하기도 했다. 천민이라도 상의원에서만큼은 그 능력에 따라 벼슬길에 열리고 신분상승까지 가능했다고 하니 가히 꿈의 직장이라고 할 만하다.

THE JOB

창의적 영감과 개성을 말한다



패션디자이너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갖고 발전해 온 의복의 역사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에 방점을 찍는다. 조선시대 침선비가 특정 인물을 위한 바느질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개성과 트렌드가 의복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흔히 말하는 '숨씨'보다 예술시각적 능력과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요즘 패션디자이너의 주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이 들어있다. 이들의 혼이 담겨있어 '패션이 아니라 예술'이라 부르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와 로봇이 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패션디자이너야말로 창의력과 예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정릉의 해를 여는 기개 넘치는 풍경,

충북 _____ 제천

청풍호반의 자연 풍경에서부터 사람들의 가슴속 의병정신까지, 제천이 품고 있는 기개가 있다. 그 기운을 받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 보고자 제천으로 향했다.

글 이재경 사진 제천시청 제공



Jecheon

한 폭 수목화를 내려다보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내륙의 바다’로도 불리는 청풍호와 그 청풍호에 둘러싸인, 봉황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닮은 비봉산. 제천이 사랑하는 이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를 찾으면 된다. 물태리에서 출발해 4면이 큰 창으로 이루어진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10여 분간 짜릿한 풍경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해발 531미터 비봉산 정상에 있는 비봉산역에 도착한다.

비봉산역에 있는 비봉하늘 전망대는 타임캡슐이나 솟대 등의 독특한 조경물도 볼거리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한눈에 담기는 청풍호반의 풍경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비봉하늘 전망대에 올라서면 청풍호와 비봉산의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눈으로 뒤덮인 산세는 흑백의 대비로 한 폭의 수목화 같은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비봉산을 부드럽게 둘러싼 청풍호는 충주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규모의 인공호수다. 그 규모 덕분에 발아래에 펼쳐지는 청풍호의 모습은 내륙의 바다라는 별명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 **청풍호반케이블카**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문화재길 166



1_ 청풍호반케이블카_신년행사
2_ 옥순봉 출렁다리_설경
3_ 청풍문화재단지
4_ 의병전시관_전시실

청풍호의 물결을 온몸으로,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의 물결과 더불어 제천10경을 가까이서 호흡하듯 체험하고 싶다면 옥순봉 출렁다리를 찾으면 된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청풍호 위를 가로지르며 기암 봉우리가 대나무 싹처럼 어우러진 옥순봉을 바라보게 만든다. 제천10경 중 하나인 옥순봉은 예로부터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릴 정도로 수려하고 기개 넘치는 형세를 띠고 있다. 단원 김홍도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산수화 ‘옥순봉도’를 남길 정도였다.

나무데크를 지나 멀리서 보이던 옥순봉 출렁다리에 발을 디디면 탄성이 절로 난다. 좁다랗게 이어진 다리는 균형을 잡기 힘들 정도로 출렁이며 물결과 리듬을 맞춘다. 걸어가다 보면 중반 즈음에는 통유리로 된 바닥이 나타나 청풍호를 허공에서 담보하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러나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바닥만 내려다보는 것은 손해다. 고개를 들면 청풍호와 옥순봉의 비경이 다리를 감싸안는다. 222m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청풍호반을 더 깊게 곱씹어 보자.

📍 **옥순봉출렁다리**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75-7

수몰되지 않은 역사,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의 아름다움 속에는 아픈 과거가 있다.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청풍호가 생겨난 대신, 4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중에서도 50퍼센트에 달하는 면적으로 5개 면과 61개 마을이 수몰된 곳이 제천시지역이다. 그렇기에 제천시는 제천의 발자취를 지키기 위해 청풍문화재단지를 조성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청풍의 역사를 한자리에 담아 두었다.

문화재단지라는 이름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청풍의 자연에 어우러진 문화재의 모습은 남다르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잘 정돈된 길을 지나면 생생한 생활유물에서 삶의 숨결이 느껴지는 작은 고가촌이 나온다. 정원 공간 너머로는 금병헌, 응청각, 한벽루가 이어서 모습을 드러내고 문화재단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망월산성으로 오르는 계단이 보인다. 망월산성의 망월루에서는 청풍호와 청풍대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시원하게 트인 시야를 즐길 시간이다.

📍 **청풍문화재단지**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제천의 강인한 발자취, 의병전시관

제천의 기개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제천 사람들의 발자취에서도 묻어난다. 그 정신이 깊게 새겨진 장소, 의병전시관을 찾았다. 제천은 을미사변 당시 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곳 중 하나다. 의암 유인석 의병대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 유생과 농민들이 외세에 항거했다. 전시관 앞마당에는 그 모습을 상징화한 제천의병기념탑이 우뚝 서 있고 다른 편에는 의병봉기의 정당성을 외쳤던 ‘자양영당’이 가까이 자리해 있다. 전시관에 입장하기 전부터 강렬한 느낌이 든다.

의병전시관에 들어서면 제천의병사를 비롯한 의병의 연대기가 사진과 함께 기다랗게 펼쳐진다. 여기에는 외세 침입에 맞서 싸운 전국 의병들의 이야기가 한곳에 모여 있다. 전시관 한편에는 제천의병이 벌인 최후의 전투 ‘남산전투’를 디오라마로 생생하게 전시해 두었다. 비록 의병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사그라들었지만 그 정신은 독립군에 계승되었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남아 있다. 📖

📍 **의병전시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좋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덕후의 삶을 살고 있는 20대 제대군인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무척 많은데요, 아이돌부터 아기자기한 소품 등 취향을 '덕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덕질'의 우울감에 빠지곤 해요. 올바른 소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지, 내 덕질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지구를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요.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제대로 좋아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글 박유진(스튜디오 휴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온 마음 다해 덕질하기

바쁘고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무엇인가 좋아할 대상이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온 마음을 다해 덕질하는 경험을 해보았을 때 얻는 충만함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계속해서 깊게 파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마음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추억은 결국 자선이 되니까요.

저는 아이돌 덕질을 과몰입해서 했을 때, 생일 카페를 열고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본 경험이 있어요.

카페 섭외, 전체 콘셉트 기획 및 디자인, 컵홀더, 홍보물, 굿즈 디자인 및 제작 발주까지.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작업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생일이 가까워질수록 '아무도 안 오면 어찌지? 팬들이 왔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준비 제대로 해서 오픈할 수 있을까?' 걱정이 극에 치달아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어요. 다행히 생일 당일에 카페는 오픈런이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저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행사와 상품 제작으로 해소한 경험이에요. 당시 저는 이걸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초년생일 때 '행사 기획'과 '자체 제작 상품 판매'라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IDOL, K-POP



덕질, 가장 얻기 쉬운 도파민

반면에 팬사인회를 가기 위해 몇십 장의 앨범을 구매해야만 했을 때는, 월급의 40%를 지출해야 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루가 덕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남들에게 숨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이 시간에 집에서 덕질을 하면 더 재밌을 텐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좋아하는 아이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했으나, 덕질을 멈추고 싶은 데에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넓게 봤을 때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소비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덕질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죠.

덕질을 하면 쉽게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 인생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흑독한 시간을 맞이했어요. 덕질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가장 얻기 쉬운 도파민이었죠. 매일 SNS에 '망했다, 내 인생 노잼됐다'라고 쓰면서, 이 무료함을 견딜 만큼 덕질을 그만두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덕질하는 것을 참고 그 시간 속에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덕질

우선 '아이돌 덕질'과 '일'밖에 없는 삶을 구조적으로 바꾸고자 관심 있던 모임들에 참여했어요. 명상 수업 등록하기, 디자이너 커뮤니티 가입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이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덕질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번 무대 한 번만 가볼까? 이번 팬사인회는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 가볼까?'와 같은 유혹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 『도파민네이션』, 애나 램키, 2022, 흐름 출판



대부분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었고, 정말 가고 싶은지, 정말 사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재차 물어보며 안하도록 노력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죄가 없어요. 다만 자본주의 사회는 덕질을 매개로 우리에게 갖은 자극을 주며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게 중독을 끊어낸 이후에서야 주체적으로 아이돌 덕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비용만큼 지불하고 보는 형태로요.

성과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기 때문에 노는 것에 있어서 야박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고 제대로 한다면 덕질은 건강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니까요. 한 번쯤 질문자님의 덕질을 되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덕질 방식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K-CONTENTS

보이지 않는 시너지 단결!

각색/그림 최승훈
icartoonist@naver.com



올해부터 나부터, 지구를 지키는 설 명절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전 세계의 기후 전문가와 기후 활동가들이 합심해 만든 기후 위기 시계가 보여 주는 남은 시간은 5년 6개월 남짓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회복 한계치까지 상승하기 전까지 매 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소중한 시점이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시간을 벌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리 편집실



1

내가 받은 선물 세트, 어떤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할까

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종이 상자,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포장용기, 비닐 봉투, 양파 망, 물로 된 아이스팩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한다. 상자류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재질에 맞게 배출하고,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한다. 비닐봉투와 비닐류는 깨끗하게 내용물을 비운 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비닐 봉투에 흘날리지 않게 넣어 배출하면 되며, 양파망과 물로 된 아이스팩 또한 내용물을 제거하고 비닐류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하지만 종종 포장재가 어떤 재질인지 헷갈리거나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의 분리배출'을 활용해 보자. 쉽게 분리배출 요령을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어 편리하다.



2

배부른 명절, 그 후의 음식물 처리 요령은?

명절이 끝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용유를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식용유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수질오염을 유발하거나 수도 배관이 막힐 수 있으므로, 식용유는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배출해야 한다. 그 외의 일반적인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이나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의 딱딱한 쓰레기와 손질하고 남은 채소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명절 음식들이 남아 있다면 전종류는 찌개를 끓이거나 나물은 비빔밥을 해 먹는 등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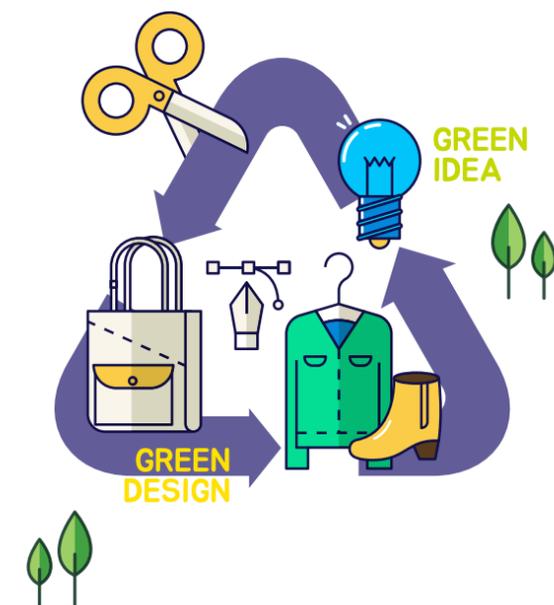
종량제봉투에 배출



3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 재치 있게 재사용하자

과일 포장재, 보자기, 부직포 장바구니, 젤 형태의 아이스팩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모두 그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까운 마음에 종종 보관하다 자리 차지만 하는 애물단지가 되고는 한다. 이제는 재치 있게 활용해 보자. 보자기는 보관해 두었다가 포장재로 재사용하거나 계절이 지나 선풍기를 보관해야 할 때 덮개로 사용할 수 있다. 부직포 장바구니는 활용도가 높다. 손잡이가 달려 있고 입구에 벨크로 테이프가 붙은 디자인이 많아 이불이나 룽패딩 등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적은 부피로 보관할 수 있다. 간단히 장바구니로 활용하고 싶으나 좁은 폭이 불편하다면, 뒤집어서 아랫부분을 마음에 드는 폭으로 박음질해 보자. 훌륭한 장바구니가 된다.



4

구매할 때부터 친환경으로 한걸음

그러나 이미 받은 선물 세트를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가정에서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구매 단계에서 어떤 선물 세트를 고를지 고민이 된다면, 친환경 포장 제품을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플라스틱 칸막이 대신 사용하는 종이 칸막이나 종이 난좌,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부피를 줄여 운송시의 탄소발자국까지 감축한 식품 선물 상자, 사탕수로 만들어 100% 생분해가 되는 '햄퍼박스', 재생 용지로 만든 과일 상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보냉백 등 친환경 포장을 적용한 선물 세트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한 명절선물로 선물 세트 포장재를 분리수거할 때의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면 더 즐거운 명절, 더 건강한 지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환경부 '지구를 위한 착한포장 공모전, 상표띠 없는 생수병 최우수' 중 종이 난좌, 종이 트레이, 상품 외부에 손잡이 부착을 통한 2·3차 과대 포장 방지 사례

올해부터는 책을 읽겠다 다짐했다면? 새해를 여는 추천 도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독서를 하겠다는 다짐은 익숙하지만 실천은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리:스펙 제대군인>의 추천과 함께 독서로 생각이 깊어 가는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트렌드코리아 2024

김난도 외 | 미래의창

‘분초사회’, ‘육각형인간’, ‘돌봄경제’ 등 우리나라의 2024년 트렌드를 10개 키워드로 뽑아 이유를 중심으로 날카롭게 분석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4>는 다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것이다.



군대 나온 여자 인데요

신나라 | 도서출판 푸른향기

군과 군인을 사랑하는 MZ 여군이 2020년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6년여간의 군 생활을 때로는 시트콤처럼, 때로는 다큐멘터리처럼 풀어낸 시간. 군인으로서 공감할 만한 고충에 더불어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엔 도전한다.’는 여군으로서의 포부가 돋보인다.



아침의 피아노

지음 김진영 | 한겨레출판

“슬퍼할 필요 없다. 슬픔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 김진영 이암 선고 이후 13개월간 바라본, 삶에 대한 일기를 엮은 유고집. 깊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던지는 말과 질문들은 죽음,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 각하게 만든다.

<리:스펙 제대군인>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커피 기프티콘 받아주세요!

참여방법

- Step 1) 인스타그램 @mpva_magazine 을 팔로우한다.
- Step 2) 팔로우 완료 인증샷 캡처
- Step 3)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 vnet-magazine.kr 접속
- Step 4) [이벤트] 코너에 인증샷 업로드

참여기간

2024. 01. 03. ~ 01. 15.

당첨자 발표

2024. 01. 19.

독자퀴즈

QUIZ

2023년 12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 ①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 ③ 일학습 병행제 ④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1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김광운(경기 파주), 석병욱(경기 화성),
김익찬(경기 용인), 위재화(경남 김해)
박덕서(경기 파주),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드립니다.
※ 12월호 정답 ④ 전공지만 가능

1월 625 전쟁영웅

덴마크병원선 유틀란디아 Jutlandia

1951. 3. 7. 입항 ~ 1953. 8. 16. 출항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의료지원 의사를 밝힌 덴마크는 1951년 초 4개의 수술실과 356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선 유틀란디아를 파견하여 부상병 4,981명과 6천여 명 이상의 민간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의약품과 의료기재들을 유엔한국재건단을 통해 민간병원에 기증하고 1953년 8월 16일 인천항을 떠났다.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 스웨덴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 설립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의학발전에 공헌하였다.

유틀란디아

- 1951년 1월 23일 덴마크 출항
- 1951년 3월 7일 부산항 입항
- 1953년 8월 16일 인천항 출항
- 1953년 10월 16일 덴마크 입항

999일간 수 많은 목숨 구한 기적의 병원선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